학교밖 늘봄학교 운영 적극 협력

제1회 전북자치도 교육행정협의회… 전북자치도교육청-전북자치도, 늘봄학교 지역사회 연계 강화 등 약속

17일 전북교육청 5층 회의실에서 유정기 부교육감(사진 왼쪽)과 김종훈 경제부지사가 참석한 가운데 제1회 전북특별자치도교육행정협의회가 열렸다.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이 학교밖 늘봄학교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전북특별자치도와 적극 협력키로 했다.

17일 전북교육청에 따르면 이날 5층 회의실에서 유정기 부교육감과 김종훈 경제부지사가 참석한 가운데 제1회 전북특별자치도교육행정협의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협의회에서는 △늘봄학교 지역사회 연계 강화 △제1회 청소년박람회 개최 △329억원 도청 전입금 2024년 제1회 추경 편성 △창업기업제품 의무구매 등 사전 실무협의회를 통해 제안된 교육 현안이 논의됐다.

양 기관은 이날 과대·과밀학교 안 늘봄교실 공간 부족 해결을 위해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특히 청소년센터, 사회복지관 등 다양한 기관을 활용해 학교밖 늘봄학교를 운영키로 하고, 보건복지부 노인일자리 사업 실버인력 신청에 교육청 수요를 포함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와 함께 5월 청소년의 달을 맞아 도내 청소년들에게 다채로운 문화 체험 기회를 제공한다.

이를 위해 5월 23~24일 국립무형유산원에서 열리는 제1회 전북청소년박람회를 공동 개최하기로 했다.

김종훈 경제부지사는 "양 기관이 교육발전특구, 협약성 특성화고 사업 등에 함께 연대해 추진하고 있다"면서 "우리 지역 학생들이 안전하고 건강하며, 동등한 학습환경에서 자신의 꿈을 향해 나갈 수 있도록 협력하겠다"고 전했다.

유정기 부교육감은 "다양하고 복잡한 지역 교육현안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도청, 도의회, 교육청 등이 모두 한마음 한 뜻으로 힘을 모아야 한다"면서 "우리 아이들을 위해 도청과 발전적인 합의를 이뤄낼 수 있도록 지속해서 소통하고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두드림 프로그램 지원' 선정

전주기전대, 3년 연속… 전국 전문대 중 유일

전주기전대학(총장 조희천)은 한국대학스포츠협의회가 주관하고 문화체육관광부와 국민체육진흥공단이 후원하는 '2024 KUSF 학생선수 두드림 프로그램 운영 지원사업'에 3년 연속 선정됐다고 17일 밝혔다.

이는 학생선수 학사관리 지원을 통한 학습 역량 강화, 학교생활 적응력 향상, 학생선수와 일반학생 간 교류의 장 마련으로 운동부 섬 문화 탈피하기 위함이다.

이번 사업은 전주기전대학을 비롯해 고려대, 건국대, 동국대 등 총 17곳이 선정, 각 1천만 원에서 3천만 원을 지원받는다.

특히 전주기전대학은 축구부 단일 종목으로 지원받게 된 점과, 전문대학 유일하게 선정됐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결과다.

이종민 교수(운동재활과)는 "이번 선정은 여러 종목을 보유한 4년제 대학들 사이에서 운동부 운영 주요 전문대학임이 검증된 것"이라며 "학교생활과 운동부 생활에 지친 축구부 학생선수들에게 실효성 있는 교육의 장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장은성 기자

"안전주간 공모 도전하세요"

전북자치도교육청, 표어 · 짧은 글 등 30일까지 신청접수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은 오는 30일까지 안전주간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전은 모두의 안전을 위한 내용으로 △표어·짧은 글 △안전 실천 내용을 담은 사진·동영상(숏컷, 숏폼 등) 등 2개 분야로 진행된다.

도내 학교 재학생과 교직원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전북교육청 학교안전과 누리집-업무마당-안전주간 공모전 게시판을 통해 공모신청서와 창작 작품을 제출하면 된다.

1인당 영역별 1개 작품을 응모할 수 있다.

이후 심사를 통해 영역별 최우수 1·우수 2·장려 2작품을 선정·시상할 계획이다.

노경숙 학교안전과장은 "많은 사람들이 안전에 대해 생각하고, 해결 방안을 모색할 때 안전사고가 예방될 수 있다"면서 "각 학교에서는 창의적 체험활동, 교과수업 시간 등을 활용해 이번 공모전에 많은 참여를 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장은성 기자

국립군산대, aT와 지속가능 먹거리 환경 조성 협약 체결

국립군산대학교(총장 이장호)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사장 김춘진, aT)는 지난 16일 대학본부 4층 회의실에서 농수산 식품산업 발전과 지속 가능한 먹거리 환경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날 협약식에는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김춘진 사장, 홍준수 전북지역본부장, 한만우 비서실장, 김준혁 미래사업협력부장이 참석했으며, 국립군산대 최연성 부총장, 오연풍 학생처장, 오정근 기획처장, 장민석 산학협력단장, 유현희 학생생활관장(식품영양학전공)이 참석했다.

양 기관은 이번 업무협약으로 대한민국 농수산 식품산업 발전 및 미래 세대를 위한 지속 가능한 먹거리 환경 조성 협력 강화와 미래 세대를 위한 저탄소 식생활 전파 및 지속 가능한 먹거리 가치 실천을 위한 국립군산대학교의 저탄소 식생활 동참에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세부적인 협약 내용은 저탄소 식생활 동참 및 농식품 분야 탄소중립 등 ESG 실천 확대, 농수산식품 분야 미래 인재 육성 및 취·창업 역량 강화 협력, 대한민국 농수산 식품산업 발전을 위한 인력·기술·정보교류 등이다. /군산=이재춘 기자

원광대 동북아 인문사회연구소 오늘 NEAD 인문학 융복합특강

원광대학교(총장 박성태) 한중관계연구원 HK+동북아시아인문사회연구소는 NEAD 인문학 융복합특강을 제54차 NEAD 콜로키움과 연계해 18일 교내 프라임관에서 개최한다.

좌담 형식으로 이뤄지는 NEAD 콜로키움 연계 인문학 융복합특강은 학부 교양강의인 '영화로 보는 한국독립운동사' 시간을 이용해 영화 '밀정' 제작자 이진숙 ㈜엔젤 그라운드 대표를 초청해 강의 담당자인 김주용 교수와 '영화 밀정 읽기: 제국주의 시대 감시, 통제, 분열의 아이콘'을 주제로 진행된다. /익산=이재춘 기자

학생 생활지도 안내서 3종 제작

전북자치도교육청, 학생생활교육 길라잡이 등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이 학생 생활지도를 위한 안내서를 제작·배포했다.

17일 전북교육청에 따르면 이번에 제작한 안내서는 학교폭력 사안 처리 가이드북, 학교폭력 전담 조사관 업무매뉴얼, 학생생활교육 길라잡이 등 총 3종이다.

먼저, 학교폭력 사안 처리 가이드북은 지난 3월 1일자로 일부 개정된 학교폭력예방법에 따라 대폭 수정됐다. '학교폭력예방지원센터' 신규 구축으로 학교폭력 전담 조사관과 피해학생 전담 지원관 제도의 운영과 역할에 대한 세부 내용 등이 포함됐다.

특히 모든 사안에 학교장 긴급조치 2호(접촉금지) 의무화, 피해학생 긴급조치 요청권 신설, 피해학생 법률 서비스 지원 등을 추가해 피해학생 보호조치를 강화했다.

다음으로 학교폭력 전담 조사관 업무 매뉴얼은 조사의 공정성과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사안 조사 단계 및 대상별 시나리오 중심으로 제작됐으며, 조사관 제도의 성공적 안착을 위해 담당 교사의 의견을 수렴하여 전담 조사관 배정 기준을 마련했다.

마지막으로 학생생활교육 길라잡이는 다양한 학생생활지도 사례에 대한 교원의 현장 대응력을 높이기 위해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Q&A 자료집,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에 대한 방법과 학생생활규정 예시안 및 제·개정 절차 등을 수록했다.

김지유 민주시민교육과장은 "이번에 제작·배포된 안내서 3종은 학교폭력 회복을 지원하는 동시에 학교폭력으로부터 안전한 학교문화와 정당한 학생 생활지도 문화를 만드는 데 큰 의미가 있다"며 "안내서를 통해 교원이 수업과 생활교육에 집중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전주교육지원청, 9월까지 '휴먼북' 진로교육 운영

전주시보건소 등과 협력… 학교도서관 중등 도서부원 대상

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김정기)은 전주시보건소, 전라북도약사회와 협력해 4월부터 9월까지 관내 학교도서관 중등 도서부원을 대상으로 휴먼북(Human-book) 진로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전주교육지원청은 전주시보건소, 전라북도약사회와 협력해 4월부터 9월까지 관내 학교도서관 중등 도서부원을 대상으로 휴먼북(Human-book) 진로교육을 실시한다.

휴먼북(Human-book) 진로교육은 학생들이 다양한 직업군에 대한 지식을 넓히고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기획됐다.

특히 참여하는 학생들이 진로와 직업 선택을 위한 생각을 모아 의학 및 약학 계열의 '휴먼북'을 선정, △전주시보건소 소속 한의사 및 치과의사 △전라북도약사회 소속 약사가 참여할 예정이다.

이번 교육에 참여한 전라중 이예지 사서교사는 "평소에는 주로 책을 활용해 학교도서관 진로 수업을 진행했는데 학생들이 선호하는 직업인과 진학·직업 분야에 대한 생생한 지식과 정보를 나누는 교육을 할 수 있어 매우 기대된다"고 소감을 전했다.

김정기 교육장은 "학생들이 학교도서관에서 '휴먼북'을 직접 만나 소통하며 직업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진로 선택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습득해 성장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전주기전대, 무주 문화관광형 창업지원 예비창업자 모집

전주기전대학교 산학협력단은 2024년 무주군 문화관광형 창업지원사업 예비창업자를 모집한다고 17일 밝혔다.

이 사업은 무주지역 주민들의 일자리창출을 위해 추진됐다.

사업아이템을 가진 예비창업자는 누구나 지원할 수 있다. 창업 기본 및 특화교육, 맞춤형 1:1 멘토링, 지역 내 네트워크 구축 간담회 운영 등을 통해 창업이 성공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창업경진대회를 통해 1인당 최대 1,200만원의 초기창업지원금을 지급한다

자세한 사항은 무주군청 홈페이지의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신청은 전주기전대학 산학협력단(063-280-5273)을 통해 가능하다. /장은성 기자

2025학년도 고교 입학전형 기본계획 안내

전북자치도교육청, 도내 중학교 진학부장 등 대상 설명회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은 17일 시청 각실에서 2025학년도 고등학교 입학전형 기본계획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도내 중학교 진학부장 및 교육지원청 고입담당 장학사를 대상으로 진행된 이날 설명회에서는 2025학년도 고입 기본계획과 중학교 내신성적 산출 지침을 안내했다.

기본계획에는 기본 방침과 고교 지원 자격을 비롯해 △2025학년도 고등학교 입학전형 일정 △입학전형 공통 유의사항 △전기고·후기고·특례입학 전형(정원 외) △타 시도 전입자 입학전 전입 관리 △학교장이 실시하는 전형의 유의사항 △중학교 내신성적 산출 지침 등이 담겼다.

평준화지역 내 일반고 입학전형은 교육감이, 그 외 입학전형은 학교 장이 실시한다.

신입생 선발은 전기모집(특목고, 특성화고, 일반고(전문계열·예체계열))과 후기모집(일반고(일반계열), 특목고(외국어고), 자율고(자사고))으로 나눠 진행된다.

전기 모집은 전형시기와 관련 없이 1개교만 지원할 수 있으며, 불합격자는 후기 모집에 지원할 수 있다.

특목고인 전북과학고와 전북외국어고, 자율형 사립고인 상산고, 전국단위 모집 자율학교인 익산고는 입학정원 전체를 자기주도학습전형으로 선발한다.

전북과학고·전북외국어고·상산고는 입학정원의 20% 이상, 익산고는 일정 비율을 사회통합전형 대상자로 우선 선발하며, 사회통합전형 선발인원의 50%는 기회균등전형 대상자로 우선 선발한다.

유효선 중등교육과장은 "중학교 3학년 담임교사들이 2025학년도 고입전형 기본계획을 정확히 숙지해 학생과 학부모에게 맞춤형 진학상담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면서 "학생들은 진학하고자 하는 학교의 입학전형을 미리 살펴 준비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전주대, '제1회 전북 지·산·학·군 협력 세미나'

산학관 커플링 성공 추진 국방과제 활성화 위해 마련

전주대학교(총장 박진배)는 지난 16일 공학관 해동학술정보실에서 제1회 전북 지·산·학·군 협력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산학관 커플링사업의 성공적 추진과 국방과제 활성화를 위해 마련된 자리로 지자체, 대학, 도내 IT 기업 관계자 100여 명이 참여했다.

먼저 1부 초청 강연에서는 국방기술진흥연구소 방위산업전략팀 봉하규 팀장이 '국방 분야에 필요한 소요 기술과 요구되는 특성은 무엇인가'와 국방신속획득기술연구원 김승필 박사가 '보유 기술을 국방 소요 과제에 어떻게 제안하는가'라는 주제로 발표했다.

이어진 2부 자유토론에서는 김영수 AI 커플링사업단장 겸 국방산업연구소장이 '전북지역의 방위산업을 어떻게 성장시킬 수 있을까'에 대해 참석자들과 토론이 이뤄졌다.

김영수 단장은 "지·산·학·군 관계자가 방위 산업 관련 다양한 정보를 교류하고 휴먼 네트워킹을 강화할 수 있는 세미나가 지속적으로 개최돼야 한다"면서 "AI 커플링사업단과 국방산업연구소가 전주대를 넘어 전북특별자치도 방위산업 발전에 중추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